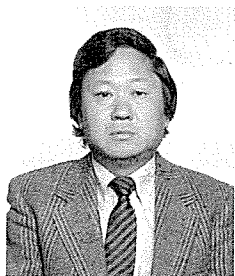


2백32년 전통 ... 고교생 선망의 캠퍼스

# 美 브라운대학교 (Brown University)

미국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인 뉴 잉글랜드에서 1764년에 문을 연 브라운대학교는 학부 대학원 등 7천여명의 재학생에 5백50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명문교이다. 현재 브라운대학교에는 김경석 김재권 조인구박사와 필자 등 한국인 4명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姜慶植

〈브라운대 물리학과 교수〉

미국의 역사가 시작됐고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인 뉴잉글랜드지방, 그 중에서도 가장 작으면서도 특유의 자유정신 전통을 지켜온 아름다운 Ocean State 로드아일랜드주(The State of Rhode Island and Providence Plantations)의 수도 Providence시의 동편 언덕 College Hill 위에는 2백3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인 사립 대학 브라운대학교가 시내 전경과 아름다운 Narragansett 해안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다. 이 곳은 이미 옛적부터 뮤즈(the muses; 원뜻은 희랍 신화에 나오는 Zeus의 딸로서 학문, 예술, 음악, 시 등을 주관하는 아홉 신들의 하나. 오늘날에 와서는 학문, 예술, 시 등에 재주있는 사람들을 칭할 때 쓰임.)들의 보금자리로 꼭 알맞은 명당자리라고 알려진 곳이다.

오늘날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가장 진학하고 싶어하는 대학으로 뽑히고 있는

브라운대학교는 1764년 9월, 당시 로드아일랜드 식민지 주지사 Stephen Hopkins(독립선언서 서명자 중의 하나)를 재단 이사장으로한 주립대학 Rhode Island College를 모체로, 침례교 목사인 James Manning 초대 총장의 영도하에 Warren에서 개교했다.

1770년 5월에 프로비던스 College Hill 명당자리로 옮겼으며, 1809년 9월 니콜라스 브라운(초대 재단이사 중의 한 사람인 니콜라스 브라운, Sr.의 아들)이 그 가족을 대표하여 거금 5천달러를 기부하던 날, 재단 이사회는 대학 명칭을 브라운대학교(Brown University in the State of Rhode Island and Providence Plantations)로 고치기로 결의했던 것이다.

## 학생 7천여명에 교수 5백50명

브라운대학교의 창립정신은 그보다 1백28년 전인 1636년으로 올라가 로드아일랜드주가 독립되었을 때의 창립이념에서 유래한다. 매서추세츠주에서 청교도의 종교박해를 피해 개인의 종교신앙의 권리는 그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고 외치면서 Roger Williams와 그 친구 일곱 가족이 프로비던스 강가로 피난 와서 로드아일랜드 식민주(The State

of Rhode Island and Providence Plantations)를 독립, 창설했을 때의 자유인 정신 이념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일곱번째로 먼저 설립된 브라운대는 연합교회의 하버드나 예일, 장로교회의 프린스턴, 그리고 성공회의 펜실베이니아나 콜럼비아대학교에 대응하는 침례교회의 대학교였지만 이들과는 전연 대조적으로 모든 종파의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문호를 활짝 개방하였고 이에 브라운대학교헌장에다 종파간의 의견차이가 일반적 또는 전통적 교육의 자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뜻을 박아 놓았다.

이는 어떤 역사가가 표현했듯이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분리되었던 유사 이래 최초의 이상향이 아닌 실존인간사회인 로드아일랜드 식민지주였기에 그 주의 학문의 최고 전당으로써 마땅히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자랑스러운 정책이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1769년 9월에 있었던 첫번째 졸업식은 비록 7명을 졸업시키면서도 하루 온 종일 걸렸고 당시의 정치상황으로 보아서는 지극히 선도적인 제목 “미국이 현 정책을 가지고는 독립국가로 행세할 수 없다.”에 대하여 열렬히 토론했으며, 그 전년도에 하버드에서 있었던 것처럼 총장과 졸업생 전원이 미국 국산의복차림을 했다고 한다.

이처럼 개방주의적이면서도 독립적이고 개인의 의견과 권리를 존중하는 지성적 자유정신과 전통은 오늘날 브라운대의 복합적이고 진취적인 교육과정이나 체제면에까지도 계승되어 선진 교육전당으로써 남다른 특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 이 대학을 방문하는 사람은 브라운을 그저 조그마한 ‘College’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적은 학생수(학부 5천6백명, 대학원 1천4백명, 의과

과정생 3백명 정도)에 밀집해 있는 친밀감을 주는 대학 캠퍼스, 그리고 짝짝하게 강조하는 학부 교육과정 등만을 보면 말이다. 그러나 브라운은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상급의 ‘University’인 것이다. 일급의 학문연구와 최상급의 교수진을 가지고 학부 1학년부터 MD까지로 직결하는 창의적인 의과 학위과정을 가졌을 뿐 아니라, 생동력의 근원인 고등학문 연구에 매진하는 1천4백명의 대학원생을 가진 그리고 다양한 교육과정에서 생동력이 넘쳐 흐르는 대학교인 것을 볼 수 있다.

### 한국인 교수 4명이 재직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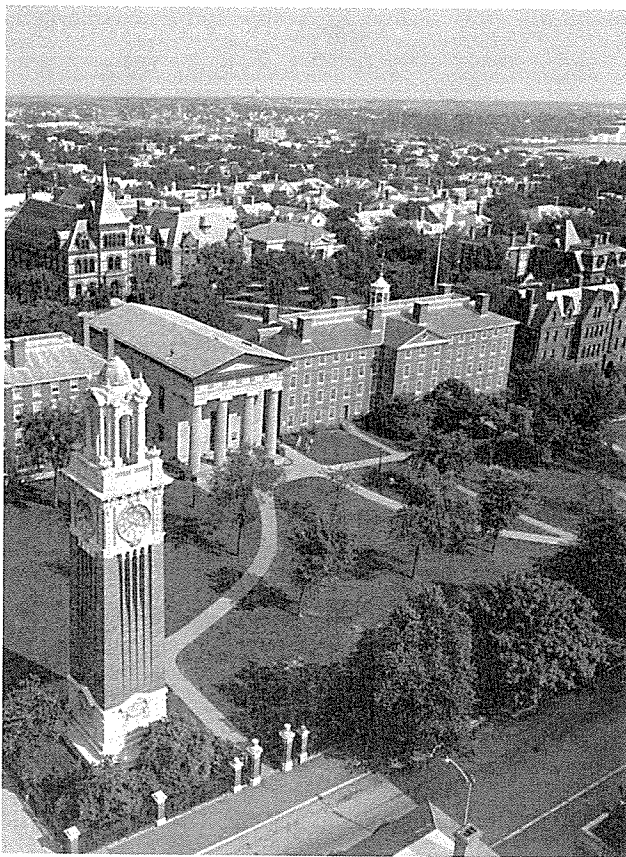
이처럼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독특하게 혼합시켜 놓은 보기드문 교육과정을 브라운에서는 ‘University/College 개념’이라고 부른다. 브라운의 모든 교수들은 지위나 유명도나 연구전문분야를 막론하고 누구나 학부과정의 학과목을 직접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모든 교육자원과 시설이 학부학생들에게 열려있을 뿐 아니라 고등학문연구센터로서의 브라운이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록펠러나 과학도서관을 비롯한 5개 도서관의 개가식 서기(open-stack) 특권은 성숙한 대학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부 학생들에게도 주어져 있고 모든 학생들이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발달된 대학교 전산시설을 쓸 수 있는 것이다. List Art관의 화실이나 도서관의 연구조사 책상 그리고 Prince공학실험소의 실험실이나 공작실 설비를 조금만 계획하면 항상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University/College로서의 브라운의 가장 괄목할만한 세력은 이런 체제에 끌려 모이게 된 5백50명의 최상급 교수진

이라 볼 수 있다. 방대한 주립대학교의 강당 강의가 싫으면서도 대학교 분위기에서 직접 학부학생을 교육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모여 있기에 학부학생들이 요구하면 언제나 만나 상담 지도해 준다. 미국의 가장 똑똑한 시인 중의 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교수가 학부 1,2년생 문학강의를 직접 하는가 하면 대통령경제자문위원을 지낸 분이 경제학입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교수가 과학계열이 아닌 학부학생을 위한 일반물리학을 직접 강의하는 곳이 바로 브라운이다.

창립정신에 따라 평생동안 영향력있고 존경받는 사회봉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강의와 탁월한 연구’를 하는 사람만이 브라운에 선 교수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다. 브라운에서 영년직 교수(tenured professor)직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이 있고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현재 브라운의 교수중 필자 이외에 미국기계공학회의 최우수 논문상(금메달)을 받은 김경석박사, 미국 중서부 철학회회장을 역임한 김재권박사가 있고, 최근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 부교수로 자리를 옮겨 온 조인구박사 등 한인 교수들도 끼어 있다. 브라운은 이처럼 대학교로서의 자원과 일반 인문 및 자연과학 대학으로서의 친밀한 경험을 잘 조화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대 교수 비율이 겨우 8:1 정도밖에 안돼 학교 크기에 비하여 파격적인 숫자의 최상급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교수들의 연구와 교육, 두 가지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브라운의 교육은 엄격하고 치밀하며 브라운의 우수한 전통을 만들어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브라운은 미국에서 가장 진취적이고 용



▲ 브라운대 전경

통성 있는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 1969년 학생들과 교수진이 함께 인준한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새로운 교과과정으로 브라운은 미국의 교육지도자 명예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 고교생 입학지원 2만명 몰려

어떤 선도적인 시사잡지 기자는 브라운이야말로 미국의 현대 사립대학교육이 가장 희망하는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상 이는 2백32년 전 브라운 창립 당시의 개방 진취적이고 지성적인 자유정신 이념전통이 오늘날의 복합적인 브라운 캠퍼스에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브라운의 교육과정은 대학교가 제공하는 교육경험으로부터 마침내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하는 것은 학생 자신들이라

고 단정하면서 필수과목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학과목 범위 내에서의 과목분배에 대한 대학으로써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 자신들이 자기들의 교육과정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책임이 있고 잘 알거나 또는 낮은 학문영역을 자신들의 지적 한계를 최대 시험해 보면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종류의 학과목을 마음껏 최대한도로 이익이 되게 이용해 보도록 권장해 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자기들의 진로를 혼자서 세워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자기 자신들의 결정에 대하여 책임이 있기 때문에 브라운대로서는 학생들의 과목선택 결정이 모든 정보를 정확히 알고 하도록 더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육과정 자문프로그램(Curriculum Advising Program)이라는 것이 있어서 신입생이 학과목을 택하기로 정했을 때 그 담당교수가 학과목 강사일 뿐 아니라 동시에 그들의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가 되게 하여 학업하는 것과 학사지문을 병행하여 받을 수 있도록 잘 조화시켜주고 있다. 그렇지만 신입생을 위한 Academic Advisor나, 2학년생을 위한 특별지도교

수인 Randall Advisors, 학부부서처장(Deans)들을 포함한 모든 지도상담교수들은 자문, 정보 및 지도를 제공해 줄 뿐이지 변경할 수 없는 계획에 따른 고정된 교육과정을 고집하여 제공하는 게 아니다. 대학교 선택에 중요한 모든 요소들을 겨냥해 볼 때 브라운의 자유롭고 융통성있는 교육과정이나 학생 각자의 교육을 개성화하도록 하는 능력이나 장려, 교수들의 학부과정 교육에 대한 강조 그리고 College 같은 분위기이면서 일류 University인 점 등이 흔히 브라운에 입학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또 한가지 학생들이 브라운을 좋아하는 것은 종래의 전통적인 'A, B, C 또는 No Credit' 체제의 학점제도 이외에 몇 개의 과목이고 제한없이 'Satisfactory 또는 No Credit' 학점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공교롭게도 다른 학교에서는 실행에 실패하여 전통적인 제도로 모두 환원했는데 브라운에선 교육과정 자문프로그램이나 학과목 성적보고서(Course Performance Report)를 병행시킴으로써, 계속 토론중이지만, 입학지원생을 증가시켜 브라운을 가장 인기있는 대학교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1천4백명의 신입생 자리를 놓고 2만명도 넘는 입학지원생이 쇄도하여 미국 내 가장 경쟁률이 높은 대학이 되었다.

이처럼 유례없는 융통성과 개인적 과목선택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브라운의 교육은 결코 형체가 없거나 감독이 없는 게 아니다. 학생들이 가능한 많은 분야를 탐구해보도록 장려하면서도 브라운의 교육은 어디까지나 초점을 잃지 않고 있다. 그 초점이 타교에선 흔히 전공

(major)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브라운에 선 집중(concentration)이라고 하는 데서 이루어지는데 대개 2학년 말에 결정하게 된다. 학위 프로그램과 집중분야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몇 가지의 전공과목을 더 택하면 되는 것이다. 선택과목제도가 학생들의 교육의 폭을 넓혀 주는 가 하면 집중과목제도는 교육의 깊이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학생들이 원하면 학습방법을 실험하기 위하여 종래의 전통적인 일반 인문과 자연과학 교육과정을 작성할 수 있는 자유도 또한 있다. 언제 자기 자신들의 교육과정을 작성하기 시작하느냐는 물론 그들이 얼마나 잘 짜여진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있고 장래 포부가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아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자연과학계열의 어떤 학생은 1학년 때부터 집중제도의 교육과정을 정하지만 많은 다른 학생들은 한 두해동안 이런저런 많은 분야과목을 택하면서 자신의 취향을 알아내고 브라운이 제공하는 많은 기회를 탐구해 보고 나서 결정한다. 드문 예이긴 하지만 어떤 학생은 세, 네번씩 concentration 분야를 바꾸어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졸업하면서 세상에 이처럼 자기의 소질과 취향을 발견하도록 해주는 대학교가 어디에 또 있겠는가 하면서 감격하기도 했다.

학생 자신들의 동기와, 인위적인 제약에서 탈피된 교육과정을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브라운은 빈틈없는 학업에 대한 철저한 집착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운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전통적인 학업면으로 볼 때 다른 대학교와 표면상 달라 보일 뿐이지 학문적인 실제 내용 면으로는 다를 수가 없다. 어떤 교육과정이고 그 위력은 지식과 문명사회의 기반이 되는 가치관에 대한 핵심적인

구역을 어떻게 잘 전달해 주고 시험해 주느냐하는 우수성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브라운에선 교수진이나 학생들이나 사회 전체가 이러한 과업에 대하여 높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브라운은 다른 대학교에서 볼 수 없는 전통적인 학과목을 초월한 과목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과 교수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장려해 주고 연구제목이나 개념, 문제, 구상에 대한 폭 넓은 탐구를 하게 해 주고, 교실에서 습득한 이론을 바깥 사회나 세계에 적용하게 해준다. 이런 과목의 하나로 Modes of Thoughts(MOTs)과목을 들 수 있다.

주로 1,2학년생에게 여러 개의 분야를 연결하여 주어진 제목에 대해서 사고하는 방법을 키워주는 과목들이다. 예를 들어 '혁명'에 대한 과목을 문학, 정치이론, 역사 그리고 인문과학의 재료들을 종합시키면서 역사나 정치적인 경험으로써의 혁명과 어떻게 인간들이 혁명을 이해했고 인간생활에 무슨 영향을 주었는가를 이해하도록 계획할 수도 있는 것인데 최근 인기있는 수많은 MOTs 중의 하나로써 "Holography; 예술과 과학과 공업기술의 집결장소"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주로 2학년을 위한 Modes of Analysis(MOAs)과목, 상급생을 위한 Foundations 과목, 특별연구제목 과목(한 예로 "과학분야에의 여성 및 소수민족 학자들"), Independent Study, Internships 과목, Venture Program, Foreign Study Program 등이 있다.

브라운에서는 시민사회 봉사에도 중요성을 강조하여 여러가지 선도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생 봉사조직체들을 결합하여 관장하는 Center for Public Service(CPS)를 만들었다. 학생들의 사회봉사조직의 하나가 브라운 Commu-

nity Outreach 인데 학생 자원봉사자들을 지역사회에 무주거자, 굶주린 자, 병원심리정신치료자, 큰 형제자매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20여종이 넘는 프로그램에 제공해 주고 있다. CPS에선 또한 공익정책, 건강과 사회, 도시문제연구, 국제학 및 환경학 분야의 기존 학술연구소나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활동을 도와 조정해 주기도 하며 C. V. Starr 국가봉사 Fellowship 프로그램을 관리해 주고 있다. 특히 Swearer 전 총장(1991년 작고)의 강력한 사회봉사 지지와 영도로 브라운은 고등교육기관 사회 내에서 사회공익봉사 사업장려에 미국내 지도자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전국 대학 및 대학교의 학생 공익사회봉사를 장려하는 새로운 기구 Campus Compact의 본부가 되었다.

### 60% 이상이 대학원 진학

위에서 언급했듯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엄선된 학생들이 자기 자신들의 동기와 개인취향 소질을 살려 특색있는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브라운이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가 하면 또한 John F. Kennedy, Jr.를 비롯하여 명문가의 자녀들이 몰려오는 학교로도 유명하다. 졸업생들의 통계를 보면 대개 60% 이상이 대학원에 진학하고 일류 법과대학이나, 의과대학 그리고 Business School 등을 지망한 경우 90%를 훨씬 넘는 숫자가 입학,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것 또한 미국내 대학교들 중 가장 높은 성적인 것이다.

2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브라운을 오늘날의 세계적인 교육전당으로 끌어올린 사람은 바로 Henry Merritt Wriston총장이다. 그는 침례교도도 아니고 브라운 출신도 아니고 동부지방의

티컷대감 계열에 속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1937년에 위스콘신주의 로렌스대학 총장에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대학에 일련의 충격적인 지도력을 발휘시켜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라는 추천을 받아 브라운대학교의 총장직을 임명받았다. 18년간 재임하는 동안 브라운에 적지 않은 자긍심을 일으켜 주는 업적을 남겼고,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거부된 지원생은 입학시키지 못하도록 하며, 브라운을 제일 희망으로 해야만 입학이 되도록 까다롭게 입학생을 제한함으로써 브라운 학생들의 질을 높였다.

그는 또 교수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한학기 과목 수를 다섯에서 넷으로 줄이는 새로운 교과과정을 도입했고 광범위한 교양필수과목을 도입했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1969년의 제2의 새 교과과정이 인준 적용될 때까지 변치않고 유지되어 있었다. Wriston총장은 또한 2차대전 참전용사들에게 브라운의 모든 권리와 특혜를 주어 입학시켜 사기를 드높이는 학문을 습득하도록 하기도 했다. 브라운을 일류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University/College' 개념을 처음 도입했고 대학원 교수진을 따로 두는 것을 막았다. Dwight Eisenhower의 친구이자 고문이었던 그는 교육자, 역사가로서의 명성이 높았으며, 그로 인해 1954년 미국 외무부(Foreign Service)가 재조직되었고, 국가차문기관인 American Assembly의 의장을 맡았었다. 1960년에는 우리세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찾는 'Blue-Ribbon Committee' 위원장, 그리고 외교관계자문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죽을 때까지 국가문제에 대하여 저술하고 조언했다. 오늘날의 브라운은 아직도 Wriston총장이 만들어 놓은 상

태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 후 Barnaly C. Keeney총장의 내실있는 지도력, 엘리자베드시대 학자인 Ray H. Heffber총장, Donald F. Hornig(존슨 대통령의 과학자문이었다) KIST 창설을 주도 조언했음)총장에 이어 패기만만한 젊은 Howard Swearer가 미네소타주의 칼튼대학 총장에서 브라운의 총장으로 1980년에 임명되었다. 베트남전쟁 반대태도, 학생파괴운동 등으로 혼돈과 지도력이 흐렸던 70년대의 미국사회에서 벗어나 Swearer총장은 브라운에 다시금 원기를 북돋아 준 풍성한 안정감을 가진 지도자였고, 학교 재정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문제, 환경문제연구소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대학교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전산센터를 지음으로써 1986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유능한 대학총장 10명중의 하나로 뽑혔고 1987년에는 브라운을 가장 중요한 10개 대학 중의 하나로 U.S. News and World Report가 선정하게 발전시켜 놓았다.

위에서 언급한 전국 2백80개 대학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자원봉사사업을 통괄하는 Campus Compact를 조직하여 의장직을 맡음으로써 공익사업의 가치와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독려하는 지도자가 되었고 브라운을 공익봉사사업의 지도자로 올려놓았다. 1988년 총장직을 사임하고 Thomas J. Watson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으로 물러났을 때는 브라운을 역사상 처음 보는 튼튼한 기초 위에 올려놓았다. 불행하게도 3년 후 병고 끝에 작고했지만 그의 행정능력과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 그리고 자신있으면서도 온화한 대인태도는 아직도 많은 교수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Swearer총장이 구상했던 브라운에서의

한국학분야 설립은 겨우 한국어 강좌를 여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그분을 도와서 추진위원회의 일원으로 함께 일했던 필자는 아직도 그분과 함께 상의했던 꿈이 실현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특히 2005년은 최초의 한국 유학생이었던 백상규선생의 브라운 졸업 100주년 이 되는 해인데 수년전 일본정부가 최초 일본인 유학생 졸업 100주년 기념식을 성대히 치렀던 것을 생각하면서 무언가 한국도 기념사업을 했으면 하고 희망해 본다.

Swearer의 후임으로 펜실베이니아대의 부총장과 뉴욕공립도서관의 관장을 역임한 Vartan Gregorian총장이 1990년에 취임하여 현재 대대적인 학교기금 증액계획을 마무리짓고 있는 중이다. Gregorian총장의 임명도 브라운이 보여준 또 하나의 획기적인 모범사례이다. 왜냐하면 그는 아르메니아 태생으로 레바논에서 자라 스탠포드대학교로 대학원 공부를 하려고 미국에 건너온 이민 귀화시민이기 때문이다.

미국 태생도 아니고 아이비리그같은 명문학교 출신도 아닌 사람을 다만 고등교육지도자로서의 능력과 인품만 보고 총장으로 임명한 것도 아마도 개방 진취적이고 자유독립정신을 존경하는 전통을 가진 브라운대학교만이 할 수 있는 과감한 처사며 용단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재정난 때문에 수리도 못하고 처절한 상태로 방치되었던 뉴욕공립도서관을 명실공히 세계 제일의 도시의 제일 도서관으로 면모를 바꾸고 다시금 문화, 예술, 교육 그리고 사교계의 중심가로 관심을 일으켜 놓았던 Gregorian총장이 브라운을 어디로 얼마나 더 끌어올려 놓을까 모두들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중이다. ⑤7